

## 외부 충격 취약 경제구조 개선 작업 '표류'

**제주형 제조업 중점 육성 종합계획 수립 '수포' 중기제품 전용 대규모 전시판매장 구축도 불발도 "온라인시장 급성장 추세 맞춰 새 전략 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서비스업이 지역총생산(GDP)의 73%를 차지하고 있어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충격에 민감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이같은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617억원을 투입해 제주형 2차산업(제조업) 육성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도내 중소기업들의 제품 판로확대를 위해 기존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을 통폐합해 중소기업 제품 전용 대규모 전시판매장(3300㎡)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온·오프라인을 통한 판매 지원과 판로 확대에 주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주형 2차산업 중점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 제조업 비중을 지역총생산 3.8%에서 8%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중 대규모 전시판매장은 제주국제공항복합환승센터 조성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제주국제공항내 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 중단으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제주형 2차산업 중점육성 종합계획 수립은 용역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했다.

특히 제조업 육성을 위해 벤처·창업 활성화 사업과 기술개발 지원, 중소기업 환경개선 등 8개 사업에 19억9000만원을 투자했으나 제조업 확대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최근 온라인 소비시장 급성장에 따른 온라인 판로확대 추진 등 소비 트렌드에 맞춘 추진 방향 설정,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과 연계해 제주형 제조업 육성 추진 전략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한국은행 제주분부는 올해 초 제주경제는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제주의 가치를 유지하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와 화장품,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에 주

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제주제품 전용판매장 구축은 제주국제공항복합환승센터 건립 무산으로 추진이 불가능하게 됐고 제주형 2차산업 육성계획 수립용역은 지속적인 예산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정계획에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며 "이 사업들은 (원희룡 지사) 임기 내 추진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대로지자 bigroad@ihalla.com



**보리 수확으로 분주한 농촌** 제주의 봄은 보리밭에서 농익는다. 푸른 물결 넘실대던 청보리밭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즈음이면 제주의 봄은 이상국기자 막바지로 치닫는다. 3일 서귀포시 대정읍 들녘에서는 황금색으로 익은 보리를 수확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 "기후변화로 멸종 위기... 대책 마련을" 한라일보·(주)제주와미래연구원 공동 기획 토론회

크리스마스나무로 널리 알려져 있고 한국에만 자생하는 구상나무. 왓슨 고래라 일컬어지는 상괭이가 인간에 의한 기후 변화·위기로 최근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이들의 현 실태와 고사·멸종을 막기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라일보와 (사)제주와미래연구원은 공동기획의 일환으로 '구상나무, 상괭이 그리고 인류세'를 주제로 지난달 27일 제주와미래연구원에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고정균 세계유산본부 생물권지질공원 연구과장, 김병엽 제주대학교 교수(그레·해양생물보전연구센터장), 송창우 제주와미래연구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구상나무와 상괭이의 실태 >멸종의 직·간접적 원인 >제주의 난개발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 >인위적 복원과 자연방생에 대한 우려사항 등이 다뤄졌다.

고정균 과장은 "구상나무의 고사 위기는 곧 같은 지역에 분포하는 곤충·동물 등이 함께 멸종 위기에 처하는 등 한라산 자연 생태계의 종합적인 반응을 가져올 수 있다"며 "구상나무의 유전적 다양성을 복원하는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병엽 교수는 "최근 국립수산물학원에서 상괭이 탈출 장치를 개발했는데, 해당 장치 설치를 수산업법에 입법화해 의무사항이 되면 상괭이 사망 개체가 줄어드는 등의 문제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제73주년 4·3희생자 추념식 평가보고회

어제 제주도청서 진행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제주도청에서 제73주년 4·3희생자 추념식 평가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지난달 3일 개최된 제73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대해 분야별 주요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주요 성과를 공유하며, 추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했다.

제주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열린 첫 번째 추념식 인만큼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도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추가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 회복, 희생자 지원 방안 등을 약속하며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강다혜기자

## 전지훈련 유치 전담 조직 확대 현지마케팅

도, TF 회의 통해 전지훈련 유치 방안 등 논의 종합계획 마련... 타시·도 체육단체 등 마케팅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를 위한 특별 전담 조직(TF)을 확대 구성, 5월부터 유치 마케팅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도와 행정시, 도체육회 위주로 운영되던 T/F에

양 행정시 체육회와 도 관광협회를 포함했다.

도는 지난달 27일 전지훈련 TF 회의를 개최해 >국내·외 실업팀 및 학교 운동부를 포함한 전지훈련 유치 방안 >유류 체육시설 발굴 및 활용

>전지훈련팀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제주도는 올해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했으며, 타 시도 체육단체 등 현지 마케팅을 강화했다.

도는 우선 전지훈련 유치 관리체계를 구축해 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다각적인 전지훈련 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

이다.

또 전지훈련 선수단에 종목별 리그전 운영 등 기존 인센티브 외에 관광협회 등과 연계한 체험형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해 나간다.

고춘화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전지훈련 유치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중간 평가를 통해 미진한 부분을 지속 개선하는 등 도내 여건에 맞는 전지훈련 유치 전략을 적극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코로나19 3일 18시 기준 확진 717(1)

**알림**

한라일보는 오는 5월 6일부터 갤러리 ED에서 **꽃 나들이 봄**이라는 주제로 6인 초대전을 개최합니다.

드라마, 가요동화, '겨울연가' 등을 통해 동화같은 작품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이수동 작가를 비롯하여 국내 미술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문인환, 박일용, 이강화, 이영수, 최지운 작가의 작품 30여 점이 선보입니다. 도민과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행사 명: 한라일보 갤러리 ED 6인 초대전 '꽃 나들이 봄'
- 전시 기간: 2021년 5월 6일(목) ~ 6월 18일(금)
- 전시 오프닝: 2021년 5월 6일(목) 오후 3시
- 장 소: 한라일보사 1층 갤러리 ED
- 문 의: ☎ 064)750-2543

